

우성사료

2013우성사료 사업전진대회 실시

“사료사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큰 사명”

-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경쟁우위 지켜갈 것



참석자들이 행사 슬로건 “위대한 도전”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2013우성사료 사업 전진대회”를 전국의 대리점 사장단과 영업조직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1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실시했다. ‘Great Challenge, High 5’ 약칭 ‘위대한 도전’이라는 사업슬로건 아래 실시된 이번 행사는 지난 해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2013년 사업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지평은 대표이사는 “한·EU, 한·미·FTA 발효 1년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 가축분뇨선진화대책 등을 비롯해 한·중 FTA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국내 축산업을 무섭게 덮칠 기세다. 이런 어려운 축산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2013년은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의 숨은 욕구를 파악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경쟁사와의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사료사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큰 사명”

1968년 사료사업을 시작한 우성사료가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껏 쌓아온 업적보다 미래의 비전과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한 시기다. 대한민국의 축산업은 이미 무한경쟁의 흐름에 올라서 있다. 몇몇 기업은 사료사업을 이미 접고 축산업에서 등을 돌리거나 한발 물러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성은 다르다. 사료사업과 축산업의 진정한 가치기준이 식량안보와 주권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45년을 한결같이 축산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사료사업에 대한 가치기준과 혼(魂)이 있



표광수상무가 사업목표 깃발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었기 때문이다. 식량은 자동차, 운동화, 휴대폰처럼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식량주권의 문제이다. 우성사료는 앞으로 축산인과 함께 무수한 변화를 이겨내고 관련산업의 자율적인 통합과 혁신을 통해 축산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다.

중부영업본부 12월 누계 사료판매 목표 초과 달성



“No. 1 파트너, 축산 IB 1위” (주)팜스코 중부영업 본부는 “끝없는 도전과 전진”을 모토로 고객과 함께 하는 가치활동을 통해 사료 판매량 단기적으로 30만톤을 회복함과 더불어 더 큰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성과는 그 노력의 결과가 지속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팜스코 중부영업본부는 지난 14일 30만톤 판매 기념식을 통해 그간의 판매증가 현황을 발표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구 중부영업본부장은 “금번 30만톤 달성성과는 팜스코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고객들의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대한민국 축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권천년 사료사업본부장은 “2015년 비전인 30만톤을 3년을 앞당겨서 달성을 하였으며 이번 달성은 미래를 위한 시작인 동시에 팜스코의 저력을 입증한 성과”라 강조했다. 그리고 팜스코와 함께하는 고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제차 강조하며 고객을 위한 2013년을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팜스코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주)팜스코는 사료사업, 계열화사업, 신선식품 및 육가공 사업 등 국내 축산전문 기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 도전의식을 갖고 현장을 누비며 고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2013년이 되기를 바란다. ☺